

미카리의 미학적인 국어 독해법

목차

1.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2. 내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본질
3. 정보처리전 팔레트(방)을 만드는 방법
4. 팔레트의 실전적 적용
5. 덩어리란?
6. 덩어리의 실전적 적용
7.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라보는법
8. 이미지화의 실전적 적용
9. 공간암기란?
10. 공간암기의 실전적 적용
11. 4논리란?
12. 4논리의 실전적 적용
13. 글을 마치며 남기는 말

1.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나의 독해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세상을 이항대립적이고, 문학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기에 내 독해법도 이에 근원한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분절된 부분집합들의 연속이다. 그 부분집합들은 각각 두 요소로 나누어져 그 이외의 요소로는 정의되지 않는다. 성별이라는 부분집합 속에서는 XX염색체와 XY염색체만 존재하며, 그 이외는 존재하지 않고, 빛이라는 요소의 저편에는 어둠이라는 요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철학속에서 이항대립적인 요소는 한 요소의 존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요소의 존재성이 담보되어야하는 서로가 의존적인 관계다. 예를 들면 빛이라는 요소의 존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즉 빛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어둠이 존재해야지만 빛이 존재할 수 있다. 빛으로만 세상이 가득차있다면 우리는 빛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책이라는 요소의 존재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책이 아닌 것이 존재해야 하는것도 하나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다. 우리는 언어로 세계를 정의내리며, 그 각각의 요소들은 이항대립에 근거해 서로 다른 명칭으로 정의내려지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들의 존재 각각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수능 국어 속 텍스트들을 이항대립적 부분집합 요소들의 집합으로 여긴다.

-둘째로,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분절된 미학적 이미지들의 집합이다. 발 밑을 적시는 들풀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밤하늘을 밝히는 아득히 먼 저편에서 피어오른 별들부터 지평선을 건너 찾아온 노을까지 나의 세계속에서 자연과 인간은 문학적인 요소이고, 그렇기에 나의 독서 습관 역시 텍스트를 통해서 문학적인 심상을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잔의 정경화라는 단어에서 붉게 빛나는 사과가 손에 들려있는게 머릿속에서 상상되고, 자유라는 단어에서 하얀 구체라는 심상이 상상된다. 나에게 텍스트란, 단순한 이면적이고 피상적인 요소로서의 단어가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로서의, 마음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오, 서술자의 세계관을, 서술자의 서술 당시의 표상을 그려내는 붓이다. 그렇기에, 나는 수능 국어 속 텍스트를 추상화되고 조각난 하나의 그림처럼 여긴다.

-이렇기에, 나는 수능 국어를 풀때도 이항대립적으로 상상하고, 문학적으로 표상하며 글을 읽어나간다. 지금부터 이에 기반한 나의 독해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내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본질 : 역산

-먼저 수능 국어란, 단순하게 표현하면 글을 읽고 글을 읽은 내용대로 선지를 판단해가며 문제를 푸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과정을 셋으로 분절한다. 첫째로, 글을 읽기전, 즉 정보처리 직전의 단계, 둘째로, 글을 읽는, 즉 정보처리의 단계, 셋째로 이 정보에 기반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선지판단의 단계이다.

-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정보처리에 대비해 미리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지, 어디에 정보를 처리할지를 인지 해야하며 나는 이를 팔레트라는 요소를 도입해 해결했다.

-글을 읽는 단계에서 우리는, 정보처리를 위해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어떻게 정보를 암기하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텍스트끼리 연결해 의미를 만들지, 어떻게 표상할지를 알아야한다. 나는 덩어리라는 개념을 통해 유기적으로 텍스트간의 의미관계를 형성해 텍스트를 문맥에 따라 블록화했으며, 이미지화를 통해 표상해서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또한 공간암기를 통해 세부 요소들에 대한 미시적인 암기를 행하려 시도했다.

-선지판단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읽으며 조합해오고 모아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선지의 모순을 해결할지를 알아야하며, 평가원에서 기출을 통해 어떻게 선지 모순을 만드는지를 선지 구성 원리를 통해 이해해야한다. 나는 스스로 기출을 풀며 체득해온 요소들대로 이에 4 논리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우리의 암기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정보간의 우열을 가리며 위계를 나눠 어떤 정보는 암기하고, 어떤 정보는 이해하고 납득하며 인지 부하를 줄여야한다. 나의 경우에는, 핵심어, 강조문장, 세부요소로 세 위계로 분절해서 핵심어와 강조문장은 이미지화를 통한 납득과 이해로, 세부요소는 공간암기와 인덱스로 처리하는 문제풀이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본질은, 어떻게 출제자의 사고를 최대한 모방하느냐이다. 출제자의 사고를 알아야 어떻게 지문 속 요소에서 선지가 만들어져 출제될지를 알고, 글의 일부로 다음 내용을 예측할수 있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릴 수 있다.

-나는 이를 위해, 덩어리를 짓고 문장을 쪼개고, 이미지를 표상하며 출제자의 서술 당시의 사고를 역산하려고 노력했다. 출제자의 사고에 한발자국 다가갈수록 우리는 글의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선지로 뭐가 나올지 예상하며 글을 읽고나서 글이 하나의 구조화된 그림처럼 여겨지는 국어의 극의에 다가갈수 있다.

3. 정보처리 전 팔레트(방)을 만드는 방법

-방금 말했듯이, 정보처리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지와, 어디에 정보를 저장할지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면 정보처리시 정보들이 마구 뒤섞여 선지 판단시 불편해지고,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지 모른다면 선지 판단할 때 어디서 정보를 가져올지 애매해진다. 이를 위해 나는 팔레트(방)을 예약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수능 국어는 두괄식 구조이기에, 글을 읽기전, 또는 새로운 논의 범주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뒤에 나올 단어에 대해 설명하므로, 우리는 팔레트를 통해 정보처리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나는 특정 단어를 볼 때, 그 단어에 연결되는 요소들의 팔레트가 그려진다. 수많은 기출 분석과 배경지식을 통한 단어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기반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나의 경우에는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 과두제적 경영과 이항대립적으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낼 다른 경영방법이 떠오른다. 기출에 따르면, 정의는 특정 단어가 시작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소고, 장단점 또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며, 이항대립적인 요소는 문제를 내기 위해 필수적인 질료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팔레트가 지문과 다를수도, 비슷할수도, 같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자동반사적으로 팔레트가 떠오르게 함으로써 인지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여 팔레트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고, 제대로 된 팔레트를 만들어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우리는 정보처리의 기반을 닦아야한다. 정의의 팔레트에 어떤 핵심어, 강조문장, 세부요소가 담길지, 장단점의 팔레트에 어떻게 담길지, 이항대립의 팔레트의 정보에 어떻게 담길지를 미리 준비하면 우리는 구조화된 정보처리에 다가갈 수 있다.

-예시를 들기위해, 정의의 방에서 만들어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간 사고를 해보자. 우리는 정의를 보면 어떻게 이것이 패러프라이징되어 선지로 나올지를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면, 오िका와는 오르비에서 활동하는 유저다. 라는 문장에서 오िका와와 오르비에서 활동하는 유저가 동치, 즉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A와 B가 어떻게 변형되어 선지로 나올지를 대비해야한다.

-둘째로, 이항대립의 방에서 만들어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간 사고를 해보자. 수능 국어에서 이항대립이라는 요소는 두 요소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주장과 비판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출에 기반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A가 정의되고 설명될 때 자동적으로 ~A를 떠올리며 ~A의 정의와 설명이 A의 반대라는거를 인지해야한다. 이를 통해 이항대립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바로 선지를 찍고 넘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4. 팔레트의 실전적 적용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독해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료에 기반해 직접적인 예시를 도입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한다. 내가 생각하는 팔레트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문은 15수능 B형의 슈퍼문 지문이다. 다음 지문을 통해 팔레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해보자.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된다.

-위의 문장은 15수능 b형 슈퍼문 지문의 도입부다. 여기서 팔레트를 정의해보자.

슈퍼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는가? 나는 슈퍼문의 정의, 슈퍼문의 형성과정, 슈퍼문과 이항대립되는 다른 지구과학적 현상이라는 팔레트가 떠오른다. 실제 문장에서 적용해보자.

-슈퍼문의 정의라는 단어에서,